

松江 漢詩의 理想郷 모티프 酒·夢·鶴 研究*

김진욱**

<차 례>

1. 序論
2. 回歸와 想像의 空間, 理想郷
3. 理想郷으로의 脫出 媒介體, 酒·夢·鶴
 - 3.1. 肯定과 不定의 二重奏, 酒
 - 3.2. 憧憬과 逸脫의 모티프, 夢
 - 3.3. 變身 모티프, 鶴
4. 結論

<국문초록>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상향의 모델이 필요하다. 조선조 지식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은 우리사회가 나아갈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축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경험세계의 재구축을 통한 이상향의 설정, 그리고 그러한 이상향으로의 탈출을 돕는 매개체를 통하여 조선조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이상향을 건설하였다.

송강은 이러한 조선조 유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지식인이었다. 그의 문학에 투영된 이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조 유학자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면을 통하여 조선조 지식인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송강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이상향으로의 탈출 매개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성주본 송강집 한시 573수를 분석하여, 본 논의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KRF-2007-361-AM0015)

** 순천대학교 HK연구교수.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제재인 酒·夢·鶴이 그의 작품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송강이 술을 통하여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되어 창작된 작품들이, 현실 세계의 고풍이 사라진 세계로의 일탈을 추구한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또한 꿈을 통하여 자신이 과거 경험하였던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의 회귀를 동경하였고,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학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신선의 대응물이라는 것을 밝히었다. 그리고 그가 현실을 탈출하여 향하였던 공간, 즉 송강의 이상향은 항상 현실 공간인 성산의 재구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송강의 이상향에 등장하는 많은 도교적 색채의 어휘들은 도교에 대한 깊은 沈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에 대한 선험적 상징의 대응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송강이 추구하는 이상향은 신선세계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 과거 성산에서 경험하였던 인식의 재구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핵심어 : 송강 정철, 이상사회, 이상향, 주(술), 몽(꿈), 학, 성산, 선계, 이단주, 화표주

1. 序論

작가를 떠나서 문학 작품은 존재할 수 없다. 실제로 현대 문학의 제비평에서도 작가의 전기적 삶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¹⁾ 그러므로 문학작품

1) 르네 웰렉, 오스틴 위렌 공저, 김병길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108쪽. 예술 작품이 가진바 가장 명백한 원인은 그 창조자, 즉 작가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개성과 생활에 의한 설명은 문학 연구의 최고이며 최량의 확립된 방법의 하나로 되어 있다.

과 작가와의 관계는 썩뜨 뵈브의 표현처럼 그 나무의 그 열매²⁾인 것이다. 작가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향과 동화라는 양 축 사이에서 갈등과 해결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 작품은 작가의 세계관이 표출되는 발화이며, 그것도 의도 있는 발화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작품이 작가의 직접적인 대응물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작품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현재화하기 때문이다. 다만 작품의 정치한 이해를 위해선 작품의 창조자가 작가이며,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자의 의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송강이 문학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창조 의지가 간여하였느냐를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송강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작품 창작에 관여하였던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관여하였던 창조 의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³⁾

송강시에 드러난 이상향 모티프는 선학들의 연구에서 종종 언급되어왔다. 그 결과 조선조 유학자들의 詩歌 작품 속에 흐르는 도교적 색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도교 사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 외⁴⁾에도 송강의 자연관을 다룬 수많은 논의들 역시 유사한 결론을 내렸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송강의 한시 작품에 투사된 이상향 모티프가 도교적 영향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2)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1983, 114쪽.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시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의 총체적인 작품이 T.S.엘리엇의 내적 삶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작품이란, 감지할 수 없는 전혀 사적인 내적 체험에 대한, 감지할 수 있는 투사물인 것이다.’

3) 송강 문학작품에 보이는 이상향으로의 지향의지는 국문시가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시 작품에서는 이상향의 지향의지가 몇몇 체제로 내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송강문학에 있어서 이상향에 대한 지향의지는 보다 근원적인 창조 의지로 전체 작품에 관류하고 있다.

4) 김주곤, 「송강가사에 나타난 도불 사상 연구」, 『대구어문논총8』, 1990.
 동달, 「송강시가에 수용된 도연명」, 『한국언어문학31』, 1993.
 신희숙, 「송강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열린문학3』, 1990.
 이봉린, 「송강가사의 道仙性考」, 『어문학51』, 1990.

욕구인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며, 송강이 철저한 유학자였으므로 도교사상보다 유교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송강 한시의 주요 제재인 酒·夢·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⁵⁾ 송강의 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제재 중의 하나인 酒·夢·鶴⁶⁾이 작품 창작과 구성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송강의 이상향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송강은 760여 수의 한시를 남겼다. 여기에서는 『松江集(성주본)』 소재 573수를 대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어느 작가와 마찬가지로 760여 수의 숫자에는 작가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확실한 송강 작품이라 규정할 수 있는 『松江集(성주본)』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전체 논의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서 작품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리를 이해한다면 송강 문학에 드러난 이상향 모티프 연구는 작게는 송강 이상향의 근원에 대한 천착이지만, 크게는 조선조 지식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구체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의는 송강의 경우에 한정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축적이 조선조 지식인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을 현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조 지식인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을 구체화 하는 작업의 시초라는데 있다. 조선조의 전형적인 사대부이자, 문인이었던 송강으로부터 그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축적 속에 다양한 士人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이 구체화 되면 불교 지식인이나, 그 밖의 여타 지식인의 이상향으로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송강의 경우에 국한하지만 활발한 후속 논의 속에서 조선조

5) 송강의 이상향 모티프는 이외에도 논의할 대상이 있다. 하지만 보다 정치한 논의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酒·夢·鶴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6) 본 논의의 대상인 『松江集(성주본)』 소재 한시 작품 573수에는 酒가 146번, 夢이 59번, 鶴이 35번 나온다. 여기에 酒·夢·鶴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유사어휘까지를 포함하면 두 작품 중에서 한 작품에 셋 중의 하나가 나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보다 정치한 논의는 장을 달리하여 하도록 하겠다.

지식인이 갈망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이 현재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回歸와 想像의 空間, 理想郷

이상사회는 理想과 社會의 복합어로서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이상사회는 화자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현실 사회의 否定⁷⁾이 극복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상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류 문화의 발전은 이상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송강에게 있어서 이상사회는 유교의 정치 이념이 구현된 사회였다. 그러므로 발 딛고 있는 현실과 송강이 추구하였던 이상사회와의 거리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송강에게 이상사회는 현실사회에서 조금만 나아가면 되는 사회였다. 송강의 정치적 삶은 평생 이 길을 추구하였다. 다음 시는 송강이 바랐던 조선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

新年祝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所祝新年掃犬羊 새해에 비는 바 오랑캐 쓸어내고

7) 여기서 부정이란 논리적 부정이 아니라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변증법적 부정은 자연·사회·사고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실재적 과정이다. 이때 변증법적 부정은 어떤 주어진 것이 내부의 모순작용에 의해 그 대립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 헤겔·마르크스 등은 부정 개념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했다. 헤겔은 부정 개념을 '지양'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지양이란 '끝내다'와 '유지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마르크스는 자연·사회·사고의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일어나려면 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부정이란 낡은 것 속에 있는 쓸모없는 질이 변화·파괴되고 좋은 질이 보존되어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발전의 본질적 계기인 변증법적 부정은 낡은 것 속에 있는 내적 모순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인용자 강조) 한편 형식논리학과 변증법 모두에서 부정은 사고의 조작과정이나 객관적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브래태니커 백과사전, <http://www.daum.net>.

8) 브래태니커 백과사전, <http://www.daum.net>.

坐使鑾輿廻塞上
仰瞻黃道日重光

임의 수레 변방에서 오게 하시여
거듭 빛나는 黃道의 해를 우리러 보기를.

B

新年祝新年祝
所祝新年朝著清
痛掃東西南北說
一心寅協倣昇平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는 바 朝廷이 맑아져서
동서남북 봉당일랑 모두 쓸어내고
일심으로 공경하고 협력하여 태평성대 지어내기를.

C

新年祝新年祝
所祝新年年穀豐
白屋更無民戚戚
丹墀再聽樂彤彤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는 바 새해엔 곡식이 풍성하야
초가집에선 백성에게 근심일랑 다시 없고
대궐에는 즈런즈런 풍악소리 다시 듣기를...

D

新年祝新年祝
所祝新年邦亂平
湖海老臣歸故里
臥看梅蘂雪中期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는 바 나라에 난리가 평정되야
湖海의 늙은 신하 고향으로 돌아가서
눈 속에 매화 꽃봉일 누워서 보게되기를.

E

新年祝新年祝
所祝新年士志堅
夷險生死惟一視
是非榮辱莫周旋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는 바 선비의 뜻이 굳어
평탄함과 험함, 죽음과 삶 이 모두를 하나로 보아
시비와 영욕일랑 주선을 마르시기를.

〈新年祝 五首 新년을 축하하여 5수〉⁹⁾

송강이 새해를 맞이하여 바랐던 이상사회의 모습이다. 송강은 新年이 되면 시를 지어 자신의 所望을 담아내곤 하였다.¹⁰⁾ 송강이 58세에 지은

9) 『松江集』, 卷一, 原集.

10) 新年祝이라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작품이 松江集에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卷一 原集에, 그리고 다른 한 편은 卷一 續集에 수록되어 있다. 위의 작품은 原集에 수록된 작품이고, 續集에 수록된 작품은 修身을 위한 작품으로 동일

위의 시를 보면 송강의 연군과 우국에 대한 갈망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신년에 나라와 백성의安危를 근심하는 마음과 太平聖代를 바라는 詩心이 뛰어나게 描寫된 작품이다.

송강의 <新年祝 五首>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經國齊民의 인식이 작용하여 시화된 A, B, C와 문학이 지닌 자기 수양의 방편으로의 기능이 투사되어 文以載道의 인식이 시화된 D, E 부분이다. 경국제민과 수기는 儒者가 평생 걸어야 가야 하는 道의 선상에 있다. 『大學』의 8正道가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작품 A에 드러난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갈망이다. 전쟁의 끝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전쟁의 상대적 개념이 평화라는 어휘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추론이지만, 전쟁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절실히 終戰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B에서는 政爭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쟁의 끝이 태평성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발발과 과정에 정쟁이 작용하였고, 그에 대한 깊은 반성이 우러나고 있다. 작품 C에서는 흉년이 극복된 태평성대로의 갈망이 시화되고 있다. 기나긴 전쟁 속에서의 굶주림이 해소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송강의 <新年祝 五首> 전반부는 전쟁과 정쟁이 극복되고, 풍년가가 울려 퍼지는 태평성대의 모습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송강의 이상사회이고, 조선조 유자들이 꿈꾸었던 사회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술이 개입해 들어갈 여지가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夢과 鶴도 그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의 개혁을 통한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大義가 논리상으로만 성립한다는 것¹¹⁾이 항상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킨다.

理想郷과 理想社會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도 많지만 엄밀한 의

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11)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사회는 항상 불평등, 부조화, 모순이라는 내부적 문제를 통하여 미래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미에서 그 차는 매우 크다. 이상향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¹²⁾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어진 용례를 살펴보면 관념적 공간으로써 화자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공간으로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송강의 이상사회에 대한 추구는 문학작품 속에서 굴절되어 이상향에 대한 동경으로 시화되어 나타나곤 하였다. 현실 속의 부재를 상상 속에서, 즉 문학작품 속에서 현실화하였던 것이다. 송강시에 도교적 신선세계가 많이 그려진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송강시에서 遊仙詩 자체는 찾기가 쉽지 않다. 송강의 이상향은 도교적 지식을 빌린 경험적 공간의 재구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론은 장을 달리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송강의 이상향이 이와 같이 도교적 선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교적 신선세계에서나 등장이 가능한 여러 소재들이 많은 시편에서 활용되어 시화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셋을 그의 시편에서 찾는다면 첫째는 신선들만이 마신다는 여러 종류의 술이고, 둘째는 꿈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이다.¹³⁾ 송강시에 나타난 이상향의 편린을 살펴보자.

何處仙遊集小亭	어느 곳 신선들이 이 작은 정자에 모였던가
紫霞香霧藥珠城	붉은 놀, 향그런 안개의 예주성이 분명하니
吹殘玉笛山花落	옥피리 불고나니 산꽃이 떨어지고
彈罷瑤琴嶺月生	옥거문고 타고나니 산 위로 달이 솟네.
萬古鳥忙須舉酒	萬古에 새처럼 바빠서 모름지기 술을 드니
群賢水逝合忘情	못 현자 물처럼 가 버리어 情을 잊을 듯.
丹丘見說深如海	듣기를 丹丘는 바다처럼 깊다하니
我欲移家隱姓名	나는 이곳에 집을 옮겨 姓名을 숨기려네

12) 국어사전, <http://www.daum.net>.

13) 송강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 중 현실세계와 현실 밖 세계로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제재들 중 시화된 빈도 수를 살펴보면 술, 꿈, 학의 순이다. 본 논의의 대상인 『松江集(성주본)』 소재 한시 작품 573수에는 酒가 146번, 夢이 59번, 鶴이 35번 나온다.

〈槐山搨翠樓次韻示主人 三首 괴산 읍취루에 차운하여 주인에게 보이다
3수 중 1수〉¹⁴⁾

송강이 괴산 읍취루에 오르니 풍경이 항상 꿈속에서 그리던 예주성과 같다. 또한 읍취가 예주를 떠오르게 하고, 괴산과 괴안의 발음이 비슷한데서 괴안국이 떠올라 이곳은 별지이구나 하는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예주성은 신선의 궁궐이니 신선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 송강은 ‘붉은 놀, 향그런 안개의 예주성이 분명하니’에서 드러나듯, 분명히 예주성에서 술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곳 읍취루가 그토록 갈구하던 선계이지 않은가 하는 심상이 드러나 있다.

搨翠라는 어휘가 예주와 무관하지 않듯이 괴산이라는 지명이 槐安國을 떠오르게 한다. 괴안국은 개미의 서울로서 당나라 순우분이 자기 집 남쪽에 늙은 회화나무 밑에서 술에 취하여 잤는데 꿈에 대괴안국 남가군을 다스리어 20년간이나 부귀를 누리었다가 깨었다는 고사에 나오는 나라이다.

송강의 선계는 여기까지이다.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선계이다. 그마저 스스로 槐安國의 고사를 차용함으로써 꿈의 세계로 돌리고 만다. 송강에게 선계는 현실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송강이 바라는 현실과는 다른 공간, 현실의 꿈가 사라진 공간인 선계가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송강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래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은 그에게 문학적 취락이었고, 공상에 가까운 상상의 산물이거나, 과거 문학인으로 살았던 시절에 대한 동경과 회귀였다.

송강은 정쟁의 선두에서 서인을 이끌었던 정치가였다. 그의 정치적 삶은 그가 추구하였던 이상사회 건설의 과정이었고, 희망과 좌절의 산물이었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은 연군의식으로 문학화되었으며, 좌절은 이상향에 대한 추구로 나타났다. 송강의 인

14) 『松江集』, 卷一, 原集.

식이 상상의 날개를 빌려 만들어 낸 이상향에 대한 구체화를 酒·夢·鶴이라는 세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理想郷으로의 脫出 媒介體, 酒·夢·鶴

3.1. 肯定과 不定의 二重奏, 酒

송강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논자들이 항상 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도 송강의 특별한嗜酒를 알 수 있다. 송강은 거문고도 즐겨 탔으며,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¹⁵⁾ 특히 그의 절친한 벗이었던 김성원이 거문고의 대가였으니, 그에게서 받은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술은 송강 문학에 있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제재이자, 심화였으니 송강의嗜酒風流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¹⁶⁾ 이러한 취락은 그의 문학 작품 곳곳에서 보이며, 특히 <장진주사>, <관동별곡> 등 국문시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송강에게 이상향으로의 탈출 매개체로서의 술의 기능은 한시 작품에도 일관되게 관류하고 있다.

송강 스스로 狂生이라 칭하며, 劉伶과 비교하였으니¹⁷⁾ 그의 기주는 자

15) 송강의 다음 시조는 그가 거문고를 즐겨 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음악에 대한 그의 깊은 조예를 보여주고 있다. ‘거문고 大絃을 티니 ㅁ음이 다늑디니/ 子絃의 羽調 올라 막막도 쇠은마리/ 썩기는 전혀 아니호되 離別 엇디호리.’ 또한 <성산별곡>의 결사에 나오는 ‘거문고 시뭇 언저 풍입송 이야고야.’에서도 그의 풍류와 조예를 알아볼 수 있다.

16) 『松江集』, 卷一, 原集. <舟中謝客> 我非成閔卽狂生/半百人間醉得名/欲向新知說平素/青山送罵白鷗驚. 이 작품에서도 송강의 기주풍류를 알 수 있다.

17) 『松江集』, 卷一, 原集. <無題> 劉何沉醉屈何醒/二老行藏未易評/人去至今多說話/世間惟有飲留名. 송강은 이러한 한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송강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시조가 전하고 있다. ‘劉伶은 언체사람인고 晉적의 高士로다/ 季涵은 귀너러니 當代에 狂生이라/ 두어라 高士狂生을 ㅁ르르스 ㅎ리오.’ 이 시조에서 송강은 자신을 劉伶과 비교하고 있는데, 劉伶은 晉나라 때의 高士로써 항상 술을 마셔 깨어있을 때가 별로 없었다는 인물이다. 그가 노래하였던 <酒德誦>의 내용을 몸소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劉伶은 중국문학에 있어서 술꾼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타가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송강의 기주를 崔台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松江은 困苦한 그의 生涯와 天來의 豪放한 氣質이 어울려 자연 嗜酒風流의 취향을 낳았으며, 술과 더불어 한 생애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醉仙’, ‘酒仙’으로서 끝없이 醉郷에 遊娛하였으며 그의 文學은 곧 이 술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주는 오로지 快樂의 醉郷에 머물고자 하는 道家의 醉樂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철저한 儒者로서의 그의 醉樂의 저변에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오는 悲壯과 激情, 그리고 그 葛藤과 苦惱를 극복하는 消憂劑로서의 술이며, 또한 和諧世界를 추구하고 이상적인 明世를 구가하는 醉興의 술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개성적인 특징¹⁸⁾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⁹⁾

崔台鎬는 송강의 기주가 道家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송강에게 술은 ‘철저한 儒者로서의 그의 醉樂의 저변에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오는 悲壯과 激情, 그리고 그 葛藤과 苦惱를 극복하는 消憂劑로서의 술’이었던 것이다. 송강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술은 신선이 마시는 선주였지만, 화자가 유가적 세계인 명세를 구가하는 취흥의 술이었기에 세사에 대한 불평을 담아내고 승화하는 술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醉郷만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仙界였던 것이다. 송강은 술을 매개로 하여 곤고한 현실을 탈출하였던 것이다. 송강이 스스로 밝힌 ‘술 마시는 이유’에 대하여 들어보자.

나의 기주에는 네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세사에 대한 불평이요, 둘은 흥을 만남이고, 셋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며, 넷은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함이라.²⁰⁾

18) 인용자 강조.

19)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亦樂, 2000, 47쪽에서 48쪽.

20) 某之嗜酒有四不平一也遇興二也待客三也難拒人勸四也. (『松江集』, 卷七, 別集)

송강은 스스로 세사에 대한 불평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송강이었기에 그는 술을 마시고 취하면, 불평 가득한 현실을 탈출하여 이상향으로 나아간다. 송강이 추구하였던 지고의 취락은 현실의 망각이자, 탈출이었던 것이다. 작품을 통하여 확인해보자.

苦調難諧衆楚音	괴로운 음조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病夫於世已無心	病이 깊어 이미 세상엔 마음이 없네
遙知湖外松林下	아득한 湖外の 松林 아래서
歲暮寒醪滿意斟	세모에 찬 막걸리나 마음껏 마시리.

〈寄示牛溪 우계에게 부치다〉²¹⁾

송강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송강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이 세상에 있었다. 위의 작품에서 보이듯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기에 그것이 병이라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 할 순 없고, 그래서 세상 밖에서 추운 겨울에 찬 막걸리나 마음껏 마시고 싶다는 것이다. 이처럼 송강은 자신이 추구하였던 세계와 현실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실제 절친한 벗²²⁾이었던 율곡과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세상과 조화를 추구하였던 율곡을 조롱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으니²³⁾ 송강의 기질을 알 수 있다.

송강은 술을 통하여 세상과의 괴리를 잊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였던 송강이기에 문학작품처럼 결코 현실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송강은 현실에 참여하여 현실 속에서 그 괴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그러한 송강이었기에 이 망각의 술을 끊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작품을 통하여 송강의 이러한 심회를

21) 『松江集』, 卷一, 續集.

22) 율곡과 송강은 동년배이다. 율곡과 송강은 둘 다 1536년(중종 31년)에 태어났으며, 송강은 1563년에 율곡은 1564년에 환로의 길에 올랐다. 둘 다 서인으로서 평생 같은 정치적 노선을 걸었다. 둘 사이 우정의 깊이는 송강이 지은 율곡의 만사에서 알 수 있다.

23) 『松江集』, 卷一, 續集. 〈示栗谷〉 君子辭黃閣/小人秉東銓/賢邪進退際/副學心恬然.

살펴보자.

問君何以已斷酒
酒中有妙吾不知
自丙辰年至辛巳
朝朝暮暮金屈卮
至今未下心中城
酒中有妙吾不知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술을 끊었나.
술 속에 묘리 있다지만 나는 모르리.
병진년에서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술 마셨지만
지금껏 마음 속 愁城을 깨지 못했나니
술 속에 묘리 있다지만 나는 모르리.
<已斷酒 이미 술을 끊다>²⁴⁾

송강은 술을 통하여 세상과의 괴리를 잊고자 하였으나,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마음속의 愁城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마음속의 수성은 현실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다. 술을 마셔도 항상 현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 술을 마시는 것은 현실을 잠깐 잊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현실과의 괴리를 좁힐 수가 없으니 술을 끊어야겠다는 것이다.

問君何以未斷酒
楚國秋天霜月苦
蘆洲水落鴈影孤
千里秦城隔湘浦
佳人相憶不相見
風雨千林獨閉戶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술을 못끊나.
楚國의 가을 하늘 서릿달이 괴로워라.
노주에 물이 빠지고 기러기 그림자 외로운데
천리의 秦城은 상포와 막혔고나.
佳人을 그려도 보지 못하니
비바람 이는 천 숲에 홀로 문 닫았네.
<未斷酒 술을 끊지 못하다>²⁵⁾

송강은 이 작품에서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자답하고 있다. 초국의 굴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세상과의 저만치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니 술을 마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비바람 이는 숲 속에서 홀로 문 닫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세상과의 괴리가, 현실과 이상의 불

24) 『松江集』, 卷一, 原集.

25) 『松江集』, 卷一, 原集.

일치가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다. 송강은 이와 같이 술을 통하여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잊고자 하였다.

송강 문학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어 시화되고 있다. 송강 문학에서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잊고자 하는 인식은 ‘세상 밖으로의 도망’이라는 기제로 나타난다. 진나라 해강이 中散大夫를 사직하고 山陽에 숨어 풀무장이를 하였던 고사를 차용하여, 자신도 그러하고 싶다는 심회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며,²⁶⁾ 도연명처럼 은거하지 못한 아픔이 술을 마시게 한다고 자탄하며 그러한 삶에 대한 지향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²⁷⁾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송강은 술을 통하여 그러한 지향을 문학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소될 수 없는 갈증과 갈망이 또 다른 탈출구를 찾게 되고, 그것은 문학 작품 속에서 과거로의 회귀와 동경으로 나타난다. 송강은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꿈’이라는 모티프를 통하여 그의 이상향을 구축하였으니, 그것은 ‘성산’이 모델이었다.

3.2. 憧憬과 逸脫의 모티프, 夢

송강은 조선조를 대표하는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으며, 정치가였다. 특히 서인의 영수로 정쟁의 한 가운데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을사사화에 송강의 姊兄 계림군 유가 윤임의 조카라는 이유로 연루되었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송강의 집안은 연루되어 피화를 입게 된다.

공의 차부 계림군 유가 정순봉, 허자 등에게 구살되자, 만형 정랑공 자는 피체되어 매를 맞고 귀양을 가는 길에서 죽었으며 아버지 관관공 역시 구금되었다가 겨우 죽음만을 면하였다. 부형이 가화를 만난 뒤로부터 교훈에 뜻이 없는 고로 공은 여러 해 동안 배우지 못하였다.²⁸⁾

26) 『松江集』, 卷一, 原集. <山陽客舍> 身如老馬倦征途/此地還思隱鍛爐/三萬六千餘幾日/東家濁酒可長呼.

27) 『松江集』, 卷一, 原集. <寄示牛溪> 禁掖何年捧玉音/白頭三宿小臣心/平生欲止陶公酒/每到愁時淺淺斟.

왕실의 가장 가까운 외척에서 하루아침에 역모의 집안이 된 것이다. 프로이드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에서 지옥으로의 떨어짐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정신적 외상²⁹⁾이 되어서, 그의 삶에서 계속하여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곧, 이 사건이 하나의 노이로제가 되어 지나친 집착 의식을 그에게 형성시켰을 것³⁰⁾이고, 그의 정치적 행위나 문학에도 드러났던 것이다. 절대적 忠과 我他の 구분에 철저한 정치인으로 송강을 이끌게 된 것이다.

반면에 송강의 무의식은 전쟁의 연속인 현실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끊임없이 갈구하였고, 그 지향점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러한 송강에게 선계로 인식되었던 공간이 성산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성산의 지우들은 신선으로 비추어졌다. 다음 시가 선계로서의 성산과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신선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羣仙聯袂訪仙居	여러 신선들이 소매 연하여 仙家를 찾으니
花發碧桃山雨餘	산 비 지난 후에 벽도화 활짝 피었네.
勝事於我已無分	좋은 일이란 나에게 나눠진 게 없으니
白頭回處意何如	흰 머리 돌릴 때에 내 맘이 어떠했으로.

〈聞隣友會棲霞堂以詩先寄 이웃에 친구들이 霞堂에 모인다는 말을 듣고 시로 시로써 먼저 부치다.³¹⁾

송강에게 성산은 ‘花發碧桃山雨餘’의 선계이다. 山 비가 내린 후 활짝 핀 벽도화는 성산의 선경을 더욱 신비스럽게 만들고, 이때를 만나 ‘羣仙聯袂訪仙居’하는 것을 보니, 시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송강이 羣仙이라 포

28) 遭家禍 公娣夫桂林君瑠被鄭順朋許磁等構殺公伯兄正郎公滋被逮杖流道卒判官公亦因繫僅脫死父 兄自以禍家無意於教訓故公屢年失學. (『松江集』, 卷二, 別集, 年譜)

29) 프로이드, 서석연 역, 『정신분석학 입문』, 범우사 1990, 284에서 285쪽. 우리가 외상적 체험이라고 명명한 것은 단시간 내에 심적 생활 속의 자극이 고도로 증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잘 처리하고, 혹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써 에너지의 활동에 지속적인 장애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30) 프로이드, 위의 책, 285쪽.

31) 『松江集』, 卷一, 原集.

현하였듯이 성산에 우거하는 많은 시인들이 신선으로 보여졌던 것이다. 송강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星山四仙’이라 하여, 성산의 시인들을 신선에 비유하였다. 송강에게 있어서 신선은 성산에서 유유자적하는 시인들이었으며, 송강에게 선계는 신선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산이었다. 성산은 송강에게 어릴 적 향수가 묻어나는 곳이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의 안락함이 배어 있는 곳이다. 또한 시인이었던 송강의 눈에 비친 勝景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박준규는 성산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계곡의 주변은 山紫水麗하여 곳곳에 누정이 있는 손꼽는 승지이다. 石川 林億齡을 비롯한 …… 중략 …… 星山の 息影亭 20景을 위시하여, 瀟灑園 48景, 獨守亭의 14景 등은 詩人騷客들에게 더욱 칭송되었던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승경이다.³²⁾

송강은 이 선계인 성산으로 항상 돌아가고자 하는 歸去來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고, 성산은 송강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향이었던 것이다.³³⁾ 송강에게는 모든 것을 잊고 息影하고 싶은 곳이 성산이었던 것이며, 이곳이 무위할 수 있는 선계였던 것이다. 다음 시가 선계로서의 성산과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신선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水北山南處處亭	水北 山南이라 곳곳엔 정자인데
舊遊迢遞武珍城	옛 놀던 무진성은 멀기만 하구나.
天開瑞石祥龍蜿	서석산이 열리어 상스러운 용이 꿈틀거리고
地匝長松爽籟生	땅엔 낙락장송 둘러 있어 바람소리이네
麋鹿未拋青草性	미록이라 靑草 좋아함 못 버리고
鵲鸞終是碧霄情	곡란이라 끝내 푸른 하늘 그리우니
從今息影無何有	이제부터 安息 외에 무엇이 있을까마는

32) 박준규, 『호남가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399쪽.

33) 송강에게 성산은 정치적 삶의 부침 속에서 귀거래처로써의 성산과 자신의 인식 속에서 재구성된 문학 속의 공간인 성산으로 나뉘어 있다.

家失形容史失名 집에선 모습 잃고 史錄엔 이름 잃는구나.

<槐山挹翠樓次韻示主人 三首 괴산 읍취루 운에 차하여 주인에게 보인다.
3수 중 1수>³⁴⁾

송강은 <槐山挹翠樓次韻示主人>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시를 『松江集』 卷一의 원집과 속집에 각각 남기고 있다. 이 중 속집에 수록된 작품을 보면 읍취루에 올라 성산을 회상하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다. 옛 놀던 무진성이 성산을 가르킴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성산이 ‘天開瑞石祥龍蜿 地匝長松爽籟生’하는 곳이다. 이러한 성산은 송강이 정치적 패배로 인한 실의를 위로해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성산이 가지는 더 커다란 의미는 송강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향이었던 것이다.

송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棲霞堂雜詠 四首>³⁵⁾는 성산의 선경과 신선 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는 ‘부르면 들의 학이 날아오고, 술잔을 나누며 달과 문답하는 선계’가 펼쳐져 있다. 선가의 풍경 속에서 신선의 삶을 사는 이가 山 늙은이 김성원이니 어찌 세상 권세가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³⁶⁾ 이처럼 송강은 김성원의 삶과 성산에 대한 동경을 표출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 중 다음 작품은 그러한 심회를 시화한 작품 중 수작이라 할만하다.

散策芳洲倦却廻	꽃섬을 산책하다 피곤해 돌아와
殘花影裏更傳杯	남은 꽃그늘에서 다시 술을 나누네.
年年南北相思夢	년년히 남북 오가는 꿈속 그리움이야
幾度松臺夜半來	몇 번이나 밤중에 송대를 이르렀을꼬.

34) 『松江集』, 卷一, 續集.

35) 『松江集』, 卷一, 續集. <棲霞堂雜詠金成遠號 四首>.

<月戶> 野鶴招常至/山精喚不應/停杯一問月/豈獨古人會.

<蓮池> 山中畏逢雨/淨友也能喧/漏泄仙家景/清香滿洞門.

<假山> 巧削神應助/深藏海幾重/侯門歌吹地/爭似此山翁.

<石井> 天雲何處看/活水方澄井/終日自無風/一塵寧到鏡.

36) 『松江集』, 卷一, 續集. <遙寄霞堂主人> 霞老平生友/難忘夢寐間/吾方走塵世/君獨臥雲山.

〈與霞堂丈步屨芳草洲還于霞堂小酌 하당장과 방초주를 거닐다가 하당으로 돌아와 술을 들다〉³⁷⁾

송강은 이와 같이 성산의 삶을 동경하였고,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김성원의 삶을 신선의 삶에 비유하며,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송강은 이 곳 성산을 자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송강은 꿈속에서 성산을 찾았던 것이다. 轉句에서 보이듯, 해마다 꿈속에서 성산을 찾았고, 셀 수 없이 많은 꿈속에서 松臺에 올랐다는 것이 시화된 작품이다. 이러한 정서가 시화된 작품이 『松江集』에는 많이 보이고 있다.³⁸⁾

송강은 항상 이 곳 성산으로의 이룰 수 없는 귀거래를 꿈꾸었으며,³⁹⁾ 상상 속에서 성산은 더욱 완벽한 이상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공자가 요순시대를 그리워하였듯 송강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세계를 각색하여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만들어 낸 이상향, 성산으로의 탈출을 갈망하였던 것이다. 성산으로의 탈출을 도와주는 주요 화소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꿈이었다.

3.3. 變身 모티프, 鶴

송강의 이상사회에 대한 추구는 문학작품 속에서 굴절되어 이상향에 대한 동경으로 시화되어 나타나곤 하였다. 송강의 이상향은 도교적 색채를 띠며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현실과의 접점을 추구하는 거리에 있었다. 과거의 기억과 재구성⁴⁰⁾이 항상 송강의 이상향에는 관여하고 있었다. 송

37) 『松江集』, 卷一, 原集.

38) 『松江集』, 卷一, 原集. 〈書感〉 鏡裏今年白髮多/夢魂無夜不歸家/江城五月聽鶯語/落盡棠梨千樹花.

『松江集』, 卷一, 續集. 〈送寄伯魯孝曾歸南中〉 君歸正及梅花動/折取當窓第一枝/寄我洛城殘雪裏/故鄉消息故人知.

『松江集』, 卷一, 原集. 〈病中書懷〉 家懷湘楚青山遠/身繫安危白髮長/每到五更愁未睡/臥看明月下西廓.

39) 『松江集』, 卷一, 原集. 〈次思菴韻〉 身如病鶴未歸山/溪老松筠谷老蘭/漢水秋風愁裏度/楚雲鄉路夢中漫/人情閱盡頭全白/世味嘗來齒更寒/遠憶松江舊釣侶/月明搖櫓下前灘.

강에게 선계는 그가 귀거래해야 할 장소이었고, 문학 작품 속에서 성산으로 귀결되었다.

我欲過江去	내 소원 이 강을 건너가서
直登松鵲山	곧바로 송골산에 올라
西招華表鶴	관서로 화표주의 학을 불러다가
相與戲雲間	구름 사이에서 함께 노닐었으면

〈統軍亭 통군정〉⁴¹⁾

위의 작품에 대하여 박삼서는 〈統軍亭〉이라는 작품에서 송강은 화표주의 학을 ‘신선이 아니면 신선을 매개, 환기하는 영물로 여겨, 그의 문학세계에서 노정된 상상력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하여 보여주고 있다.’⁴²⁾라고 평하였다. 이 작품은 송강이 33세 때 원접사 朴淳의 종사관이 되어 의주에 있는 統軍亭에 올라 지은 시이다. 송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무의식 속에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표주는 궁궐·성곽 등의 출입문에 세운 기둥, 또는 무덤 앞에 세우는 망주석 따위의 돌기둥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화표주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華表鶴歸의 고사성어⁴³⁾를 차용한 화표주이다.

송강은 이 작품 외에도 ‘華表’라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였다. 송강이 설

40) 『松江集』, 卷一, 原集. 〈與白玉峯光勳遊邊山〉 水淺窺龍窟/松疎露鶴巢/欲知仙在處/須入白雲高.

41) 『松江集』, 卷一, 原集.

42) 박삼서, ‘송강문학의 도교사상’, 『선청어문 16, 17합집』, 514쪽.

43) 중국 한나라 요동 땅에 정령위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젊어서 고향을 떠나, 깊은 산에 들어가 신선의 도를 배웠다. 마침내 천년 만에 신선의 도를 깨우치고 학으로 변신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와 그는 성문의 화표주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어느 날 소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학을 보고는 활을 겨누어 쏘려고 하였다. 그러자 학은 하늘로 날아 올라 빙빙 돌더니, 소년에게 자신은 천년 만에 돌아온 정령위인데, 성곽은 예전과 같건만 사람들은 신선의 도를 배우지 않아 무덤만 가득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丁令威, 本遼東人, 學道於靈虛山. 後化鶴歸遼, 集城門華表柱. 時有少年, 舉弓欲射之. 鶴乃飛, 徘徊空中而言曰: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塚壘壘.” 遂高上衝天. 今遼東諸丁雲其先世有升仙者, 但不知名字耳. 陶潛, 『搜神後記』.

화 속의 인물인 정령위를 깊게 추모하였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령위는 충신도 아니고 뛰어난 시인도 아니다. 설화 속의 정령위가 송강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정령위의 귀거래가 송강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삶을 송강이 갈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은 송강의 문학 작품 중 학이 제재가 되어 창작되어진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華表柱鶴何在
秋雨冥冥秋草青
千載一歸喧萬口
城郭人民俱有情
鶴亦不能無心否
來既支離況死生
曾聞丁也化爲鶴
更見鶴復化爲丁
爲丁爲鶴無乃勞
不如一去終雲扃
設使千載每一歸
萬劫半在遼陽城
安有眞仙不忘家
平分人世與天庭
吾將沽酒遼陽市
大醉不省黃庭經

화표주의 학이 언제 있었던가
가을비 어둑어둑, 가을풀 푸르네라.
천년만에 한 번 돌아와 만 사람을 들썩이니
성곽과 사람들 함께 有情이네.
학도 역시 無心이 안되는가
오기도 지리했는데 하물며 生死에서랴.
일찍이 들으니 丁令威가 학이 되고
다시 보니 그 학이 다시 화하여 정령위가 되었다니
丁이 되고 鶴이 되는 것 차라리 수고롭나니
한번 가서 구름빗장에 마침보다 못하리라.
설령 천년에 매번 한번씩 온다해도
만겁에 반은 요양성에 있으리니
어찌 진선이 집을 잊지 못하여
人世와 천상을 나누어 살겠는가.
나는 장차 遼陽市에 술을 사서
대취한 후에 황정경일랑 살피지 않으리라.
<華表柱 화표주>⁴⁴⁾

송강의 <華表柱>에 대하여 김석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간 존재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 모든 세상적 인연을 완전히 잊은 뒤에야 선화한다는 것인데 인간 정령위의 선화체인 이 작품 속의 선학은 요양성의 일을 못 잊어 지리한 험로를 뚫고 화살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요양성

44) 『松江集』, 卷一, 原集.

화표주 위에 출현하고 있다. 중략 결국 송강은 이 설화 속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속사회와 정치 현실을 좀처럼 떠날 수 없는 존재인 정영위를 읽고, 그것을 창작의 모티프로 하여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송강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설화 해석이요, 정영위 이해인 셈이다.⁴⁵⁾

이러한 언급들은 송강에게 학은 자신의 투사체이자, 신선 자체 내지 신선의 투사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송강에게 있어서 학의 모티프 중 주요한 하나가 신선 그 자체인 것이다. 다음의 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학을 묘사하고 있다.

水月諧心性 심성은 물에 뜬 달과 어울리고
 風霜賴羽毛 풍상엔 깃과 털에 의지한다네.
 須棲烟島裏 모름지기 연기 자욱한 섬 속에 깃드시고
 莫坐露松梢 드러난 소나무 가지엘랑 앉지 마시길.
 <詠鶴贈宋仁垂英壽 학을 읊어 송인수(영구)에게 주다>⁴⁶⁾

송강의 한시 작품에서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영물로 그려지고 있다.⁴⁷⁾ 즉, 학을 통하여 신선은 선계와 현실을 오고 가는 것이다⁴⁸⁾. 그러므로 학의 부재는 선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⁴⁹⁾ 송강에게 있어서 학은 선계와 현실의 교량 역할을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송강의 한시에서 학은 그 자체가 신선이자, 신선의 투사물이고 몇몇 작품에서는 송강 자신의 투사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송강 자신의 투사물이기보다는 송강이 무의식 속에서 이상적인 삶

45) 김석희, 「학의 이미지를 통해 본 송강문학의 주제적 특성」, 『선청어문24집』, 372쪽.

46) 『松江集』, 卷一, 原集.

47) 『松江集』, 卷一, 原集. <送崔彦明滉觀察海西之行> 黃鶴仙人海西去/首陽山下芙蓉堂/芙蓉五月清香發/與子政聲誰短長.

48) 『松江集』, 卷一, 原集. <別王天使敬民> 家住江南萬里餘/秋風客路意何如/纔聞鶴馭來仙躅/忽見鸞簫過碧虛/ 下略

49) 『松江集』, 卷一, 原集. <又次壽翁韻> 別鶴招難至/眞仙去不留... 下略

50) 『松江集』, 卷一, 原集. <小風波處便爲家> 須與酒盡忽回棹/水鳥依依山日斜/天長水闊不知處/鶴上之仙非子耶.

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러워하는 이들의 대응물로써 나타난다. 그들을 학으로 노래함으로써 신선과 같은 삶에 대한 강한 동경이 표출되고 있다.

송강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학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현실 공간을 탈출하는 변신 모티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⁵¹⁾ 송강은 술을 통하여 醉樂의 세계로 나아갔으며, 꿈을 통하여 과거로 회귀하였다. 또한 문학 작품 속에서 학을 등장시켜 신선 세계와의 접점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 셋의 공통점은 그 지향점이나 그 구체적 심상이 성산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송강의 성산에서 실제적 삶은 그의 문학 작품에 비쳐지는 이상향처럼 완벽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困窮하였으며, 수학기 이후 송강이 성산을 찾은 것은 항상 정치적으로 실의하였을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은 송강에게 귀거래처였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돌아가야 할 곳, 조선조선비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졌던 귀거래처가 송강에게는 성산이었다. 이러한 성산이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는 각색되어 신선이 머무는 공간, 신선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4. 結論

인간은 東西古今을 통하여 수많은 이상향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적 공간을 창조해 왔다. 그러나 그 많은 이상적 공간들은 유사성 못지않은 상이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상향을 창조한 주체의 이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인간 인지의 발달에 따라 현실 세계와의 접점의 필요⁵²⁾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그럼

51) 『松江集』, 卷一, 原集. <次思菴韻> 身如病鶴未歸山/溪老松筠谷老蘭/漢水秋風愁裏度/楚雲鄉路夢中漫/人情閱盡頭全白/世味嘗來齒更寒/遠憶松江舊釣侶/月明搖櫓下前灘.

52) 유병림, 「이상의 공간적 표상의 문제」, 『환경논총 30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이상향을 천편일률적으로 도교와 연관하여 논의를 해온 것에 대하여 이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 역시 이상향의 모델이 필요하다. 조선조 지식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이 현재 우리사회 이상향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조 지식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이 공간적, 사회적, 역사적 관점 등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하는 이상향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조선조 지식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은 우리사회가 나아갈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축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험세계의 재구축을 통한 이상향의 설정, 그리고 그러한 이상향으로의 탈출을 돕는 매개체를 통하여 조선조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이상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지식인들에게 이상향은 항상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였고, 그들이 현실세계에서 추구하였던 것은 왕도정치에 기반한 현실의 부정이 제약된 사회였다. 이 차이를 줄이는 작업과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구체적 상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송강은 이러한 조선조 유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지식인이었다. 그의 문학에 투영된 이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조 유학자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면을 통하여 조선조 지식인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논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논제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논의의 축적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992, 143부터 144쪽 參照. 유병림은 이 논문에서 ‘이상향은 기본적으로 이상이라는 인간의 가치체계가 표현되고 이를 現世적으로 실현하려는 공간적 구조가 동시에 제안된 경우이다. 특히 이상향의 공간적 表象 문제는 이상적 가치체계가 달성되고 실현되기 위해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현실세계에 구도화 시키려 하는가의 과정까지 포함한다.’라며 현실의 대안적 공간으로 이상향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송강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이상향으로의 탈출 매개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성주본 송강집 한시 573수를 분석하여, 본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체재인 酒·夢·鶴이 그의 작품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송강이 술을 통하여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되어 창작된 작품들이, 현실 세계의 꿈가 사라진 세계로의 일탈을 추구한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또한 꿈을 통하여 자신이 과거 경험하였던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의 회귀를 동경하였고,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학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신선의 대응물이라는 것을 밝히었다. 그리고 그가 현실을 탈출하여 향하였던 공간, 즉 송강의 이상향은 항상 현실 공간인 성산의 재구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송강의 이상향에 등장하는 많은 도교적 색채의 어휘들은 도교에 대한 깊은 沈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에 대한 선험적 상징의 대응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송강이 추구하는 이상향은 신선세계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 과거 스스로 경험하였던 성산 생활의 인식의 재구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참고문헌

鄭澈, 『松江集』.

李珣, <東湖問答>, 『栗谷集』.

許蘭雪軒, 『蘭雪軒詩集』 韓國文集總刊 67권.

김석회, '학의 이미지를 통해 본 송강문학의 주제적 특성', 『선청어문 24집』, 372쪽.

김진옥, 「한시에 투영된 조선조 지식인의 청학동 인식 연구」, 『남명학 연구 30집』, 2010, 311쪽.

김진옥,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240~248쪽.

박삼서, '송강문학의 도교사상', 『선청어문 16, 17합집』, 514쪽.

박준규, 『호남가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399쪽.

유병림, 「이상의 공간적 표상의 문제」, 『환경논총 30집』, 143~144쪽.

최태호, 『松江文學論考』, 亦樂, 2000, 47~48쪽.

레온 에텔,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1983, 114쪽.

르네 웰렉, 오스틴 위렌 공저, 김병길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108쪽.

프로이드, 서석연 역, 『정신분석학 입문』, 범우사 1990, 284~285쪽.

국어사전, <http://www.daum.net>.

브래태니커 백과사전, <http://www.daum.net>.

투고일 : 2011년 7월 5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the Motifs of Ideal Place including Alcohol, Dream and Crane in Songgang's Hansi

Kim, Jin-wook

A model of an ideal society may help the current society to develop soundly. An ideal place the intellects in Joseon sought can be a good resource for us to construct our future society. The intellect in Joseon established their own ideal place by reconstructing an experienced world and by the medium that helped them to escape.

Songgang is one of the leading scholars, politicians and intellects of the time.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 his perception of ideal place in his literary works as a phase of Confucian scholars in Joseon who sought the ideal place. In turn, it may enable us to glance at the feature of ideal place that the contemporary intellect sought.

This study examined the aspiration of Songgang on ideal place, and the medium for the escape. For this purpose, 573 Hansi in Seongjubon Songgangjib were analyzed, and particularly the role of alcohol, dream and crane which were som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resources in the works was analyzed.

From the works in which Songgang intended to forget the agony of reality by drinking alcohol, this study figured out that Songgang pursued a world where no trouble existed. And through his dream, it proved that Songgang aspired to return to the most ideal world which he once experienced in the past. From the analysis of crane, this study proved

that a crane was not a simple kind of creature, but an equivalent with Taoist hermit. This study also found out Songgang's ideal place to return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reconstruction of Seongsan, an actual place in the world.

Many Taoistic words in his ideal place were not derived from his in-depth scrutinization of Taoism, but a simple counterpart of intuitive symbols against Taoist hermits. The ideal place of Songgang was based both on abstractive concept on a Taoist world and on the life in Seongsan which he experienced on his own in the past.

Key-words : Songgang Jeong Cheol, ideal society, ideal place, alcohol, dream, crane, Seongsan, fairyland, Yidanju, Hwapyoju

